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 4.13조치, 6.29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기만한 것이다. -

전두환의 4.13조치는 국민의 반독재 민주화 의지를 배신한 장기집권음모의 표현이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수천동포를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음모가 지난 85년 2.12총선에서 민정당 후보 대거 낙선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살인마 전두환은 장기집권의 음흉한 음모를 노골화시키면서 결국 국민의 민주화 의지인 직선제 개헌요구를 짓밟고 87년 4.13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민주화와 노동자, 도시 서민의 생존권을 요구하던 애국청년, 학생들을 차디찬 감옥으로 끌어넣고 온갖 고문으로 짓이겨 놓은 고문정권, 학살정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4.13호헌 조치는 국민의 직선제 개헌을 통한 민주화 의지를 배신한 채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한 것이었고 각계 각층의 우리 애국 부산시민은 4.13호헌 조치를 반대하며 직선제개헌 의지를 분명히 해나갔습니다.

노태우의 6.29선언은 또다시 국민을 속인 정치공작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 승리했습니다. 작년 6월 10일부터 15일여간 계속된 반독재 6월 국민 대항쟁은 우리 부산의 자랑이며 4천만 국민의 민주실천의 의지였습니다. 시국선언 등 국민의 강력한 직선제 개헌요구에 부닥친 전두환은 기만적으로 내각제 개헌으로 돌아섰으나 이미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겠다는 의지를 굳혀 마침내 애국청년, 학생들과 부산의 자부심, 노무현 변호사 등 민주인사가 참여하여 만든 "국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온 국민과 함께 6월 국민 대항쟁을 전개시켰습니다. 밤 늦도록 어느 지역보다 힘차게 싸운 부산시민의 투쟁으로 결국 우리는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6.29 항복문서를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TV에 비친 노태우의 겁먹은 얼굴을 보며 우리는 승리의 감격을 최후탄이 뒤덮힌 거리, 거리에서 누렸습니다. 6.29 노태우 항복문서는 분명 15여일 간에 걸친 우리 애국 시민의 힘찬 싸움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한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직선제 개헌 외에 어느것 하나 지켜진 게 있습니까?
대통령선거법 개정은 컴퓨터 조작까지 동원한 민정당과 노태우의 부정·조작선거로 바뀌었으며, 부정투표함을 지키던 구로구청 시민을 무차별 구타·감금한 폭력선거로 뒤

바뀌었습니다. 또한 시국관련으로 구속된 양심수의 석방·사면·복권은 대다수 애국양심수를 차디찬 감옥에 남겨둔 채 생색만 내는데 그쳤고, 언론자유, 정당의 건전한 활동보장 등 국민기본권 신장은 새로운 국민신문인 한겨레 신문의 창간방해, 민중의당 등 혁신정당의 창당, 집회방해등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 탄압하는등 어느 것 하나 전두환 정권과 바뀐게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등 생존권 보호요구에 기관원과 구사대 등 폭력강패 집단을 동원해 작업장을 짓밟았으며 이로써 노태우의 6.29 선언도 말뿐인 사기극이 되어 버렸습니다.

허대령, 또 왜 이러나?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국민에게 사기를 쳐먹고 부정조작 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앉더니 이제는 전두환에게 미움을 샀던 허대령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79년 12.12 반란 때 한갓 대령자리에 있던 자가 자기상관을 체포하는데 앞장서고 80년 5월에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하는데 공을 세운 그가 군부대의 권력다툼으로 전두환에게서 미움을 사더니 이제는 학살공범인 노태우와 손을 잡고 마치 자기가 6.29 선언을 하게 한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새마을 육성법을 제정하여 새마을본부를 부정축재의 온상지로 만든 자가 이제는 새정치, 새 인물이라고 자처하는 이 부정의 시대를 이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독재정권과 온몸으로 맞서 당당히 싸워왔던 인권변호사, **노무현** 그와 함께 독재정당 민정당을 몰아내고, 노동자, 도시서민의 생존이 보호받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다 함께 외칩시다.

1. 더 이상은 안 속는다. 민정당을 타도하자!
2. 6월 항쟁 국민승리, 총선에도 승리하자!
3. 금권선거·타락선거, 국민경제 파산된다!

1988. 4. 13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본부

(KBS와 부산일보 사이) T. 47-3711~2 · 47-3735~6

연락사무소(자원봉사요원) T. 23-5511 · 47-4438

“반 민정당 투쟁을 위해
김영삼 전총재 부산에 오다”

• 일시 : 1988년 4월 15일 (금) 오후 4시

• 장소 : 삼 성 극 장 (범일동)